

우연과 운이 겹쳐 이루어진 청소노동자의 산재신청

강은솔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회원, 노무사

산업재해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유독 마음이 가는 재해자가 있다. 내게는 청소노동자 이선화 님이 그런 분이였다. 70세라는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흐르고, 미소가 아름다운 분이였다. 말도 어찌나 유려하신지 가만히 듣고 있으면 흠뻑 빠져들어 사건과 무관한 이야기도 한참을 하곤 했다. 이선화 님은 1980년대 후반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청소일을 시작하셨고, 2012년부터는 광주의 한 빌딩에서 일을 하셨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청소노동자인 그녀는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일들을 내게 전해주었다.

한전에서 오래 일했지만, 4대보험에는 용역업체만

사건조사를 하며 재해자와 함께 한국전력공사 광산지사를 방문했다. 약 2,000평 규모의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미 퇴직한지 2년이 되어 오랜만에 방문한 일터를 보며 재해자는 본인이 어떻게 일했는지 신나게 말씀해주셨다. 오전 5시, 동이 뜨기 전에 집에서 나와 한전으로 향하던 이야기,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1차적으로 청소를 끝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밀대를 밀고 다닌 이야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커다란 포대에 청소도구와 쓰레기를 넣은 채 질질 끌고 계단을 오르내린 이야기, 대강당 바닥을 빗내기 위해서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한 이야기.

재해자의 모든 말 속에서 그녀의 오랜 일터,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왔다. 그러나 재해자의 4대보험 내역에는 수많은 용역업체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고용승계가 됐다는 점에서 청소노동자 중 손에 꼽히게 운이 좋았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 “나는 한전에서 오래 일했어”라며 뿌듯하게 말씀하시던 이선화 님을 떠올리니 왠지 모르게 씁쓸해졌다.

그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함께 일하던 동료의 수도 점차 줄어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6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했지만, IMF를 거치며 3명으로 감원됐다. 청소를 해야 하는 양은 동일한데 사람만 줄어드니 1시간 30분은 일찍 출근해야 겨우 청소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그 어떤 수당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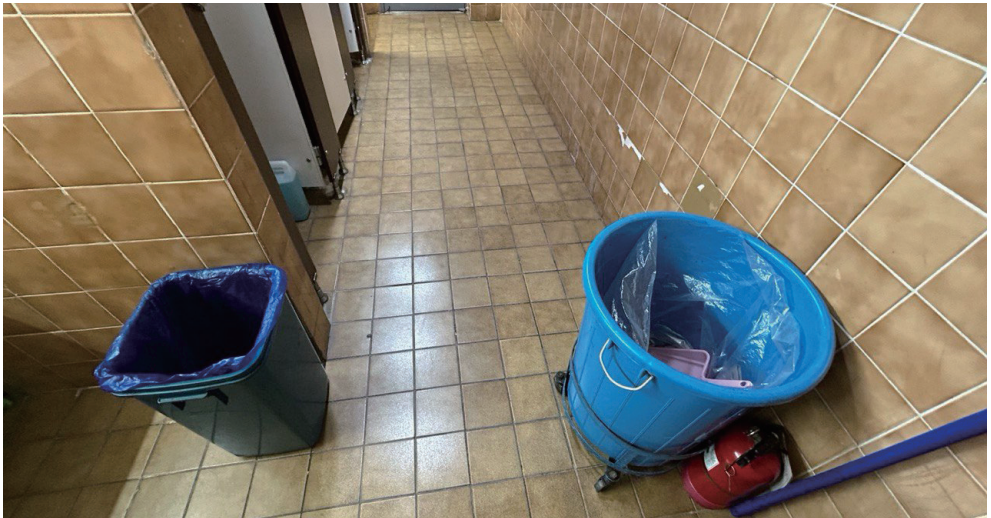
계약기간도 1년 단위로 단축됐다. 까딱 잘못하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원을 보충해달라는 말, 수당을 달라는 말, 휴게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말은 엄두도 못냈다고 한다.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다음 해에도 무탈히 고용승계가 되길 바라며 군소리 없이 공간을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 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주어진 의무만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퇴직금 등 문제로 노동청에 들락날락하기도 하셨다고 한다. 본인이 '노동청 전문가'라고 말하며 웃으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렸다.

친구의 조카 소개로 산재 신청하게 되었어요

20년 정도 일하니 몸도 여기저기 말썽이었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하셨다. 손가락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어깨와 무릎에 참기 힘든 통증이 느껴지고 허리를 굽힐 때마다 지끈거렸다고 한다. 재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2-3일에 한 번꼴로 정형외과에 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고된 노동에 지친 몸을 물리치료를 달래가며 일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본인의 아픔이 산업재해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

청소를 하다 넘어져 다쳤을 때도 “산재 신청은 곧 해고”라는 인식에 꿈도 못꾸었는데, 사고가 아닌 질병이 산재임을 인지하고 신청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일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듯하다. 재해자의 산재 신청도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더 이상 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일을 완전히 그만둔 후에야 이루어졌다. 그조차 정말 손에 꼽히게 운이 좋았던 경우였다.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인 조카가 노무사라 이선화 님이 받은 수많은 수술이 산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재해자는 우연히 들은 이 정보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딸에게 찾아보라고 했다. 그렇게 우연히 노무법인을 찾았고 나를 만났다. 허리 수술을 받은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흘러 신청하기 힘들었지만, 운이 좋게도 어깨와 양쪽 무릎은 2년 전에 수술해 산재 신청이 가능했다. 그렇게 우연과 운이 겹쳐 이선화 님은 퇴사한지 2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재해자가 일했던 건물의 화장실. 출처 : 강은솔

“그래도 선생님은 깨끗한 곳에서 일하셨네요”

재해자와 함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 진술을 하러 갔다. 워낙 명석하시고 말씀을 잘하셔서 별걱정 없이 회의실로 들어갔다. 질판위 위원이 재해자에게 “그래도 선생님은 깨끗한 곳에서 일하셨네요.”라고 한마디 하셨다. 이전까지 덤덤하게 말씀을 잘하시던 재해자는 그 말을 듣고 “깨끗한 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라고 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질판위가 끝난 후 그녀는 멧쩍은 웃음을 보이며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그렇게 울컥하더라고. 깨끗한 곳을 유지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잘 모르는 거 같아서”라고 말씀하셨다.

질판위 위원이 나쁜 의도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고 위로 차원에서 한 말로 느껴졌기에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럽고 슬픈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그녀랑 나눴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니, 그 감정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했다. 수십 년 동안 청소일을 하면서 참아왔던 억울함, 불안함, 서러움 등의 감정과 신체적 고통에 대한 말을 꺼내놓았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 “그래도 선생님은 깨끗한 곳에서 일하셨네요.”라면 그것이 어떤 맥락이었든 그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산재가 승인된 후 재해자와 만나 밥을 한 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운이 좋았음에 감사한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한전에서 같이 일한 동료들을 소개해주었다. 그 동료는 또 운이 좋게도 이산화탄소와 친분을 유지해 산재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재해자와 동일하게 허리, 어깨, 무릎이 아팠다. 마음 한편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다. 운이 닿지 않아, 오랜시간 고된 노동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몸을 그저 자기 탓으로, 자신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으로 여기며 살아갈 80만여 명의 청소노동자들의 삶은 어떠할지 문득 궁금해졌다. 인터